

우리만의

정보통신기술을 만들자



삼성SDS/정보기술연구소장 이경배

우리는 디지털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국내 정보기술(IT)시장의 성장사를 살펴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인터넷 인구 1,600만 시대를 맞아 PC,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 분야는 급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PC시장은 98년보다 81%, 중대형 서버는 56%가 성장했고 ERP(전사적 자원관리) 48%, 네트워크 87%, 시스템통합(SI) 25% 등 각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양적 성장만으로 국내 IT분야의 발전을 낙관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의 대리점 역할에 지나지 않거나 외제의 모방, 핵심기술 및 부품의 도입으로 로열티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PC시장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아직 핵심부품은 외제

다. 중대형 서버 시장은 IBM, HP, COMPAQ, SUN 등 4개사가 85.9%를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사정도 마찬가지. 아래아한글 등 일부를 빼면 해외와 견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우리만의 제품과 기술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 것이 없다는 것은 곧 외국제품과 기술의 속국이 된다는 뜻이다.

그 동안 정부와 기업이 기초기술 연구와 우리제품 개발에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기술입국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산학연 협력강화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도 기초기술 연구와 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 연합체제나 BK21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로 기업은 해외 연구개발(R&D)체제를 갖춰야 한다.

더 이상 국내1위는 무의미하다. 해외시장을 향한 제품개발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외 연구소, 개발센타를 설립해야 한다.

셋째는 틈새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선진기업들이 이미 많이 포진하고 있는 분야는 승산이 없다.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과 이를 위한 철저한 시장분석, R&D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은 것부터 우리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無에서 有를 창조했던 반도체의 성공담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훌륭한 교훈이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제품, 우리가 직접 연구개발한 기술만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기술입국의 지름길이다.